

### 응답받는 기도

신년특별기도회 설교요약 (1월 1일, 월) / 성구: 마태복음 7:7-11



1.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미래는 잘 구하는 사람에게 열려있다. 기도는 씨앗과 같아서 한 사람의 미래는 오늘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2.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Spurgeon)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필사적인 방법, 거룩한 절박함이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 실패는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다.
3.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새벽은 깨어있는 자에게 찾아 온다.
4. 간구기도와 중보기도: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일 때 간구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을 중보라 한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다.
5. 고상한 기도가 아니라 고생한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안되는 인생의 어려운 조건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6. “순수하지 못한 간구는 간구에 의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P.T. Forsyth)  
간구의 기도는 성막에서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 말씀의 바탕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러지는 회개의 과정, 제물드리고 태움, 향과 촛대, 떡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 결국 성경공부, 헌신생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 하나님께 드러지는 온전한 헌금생활...총체적인 신앙생활의 성숙한 온전한 생활이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7. 간구는 나의 있는 그대로의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다. 거룩한 습관이 축복된 미래를 낳는다.
8.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데 왜 구해야 하는가? 정직한 답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행위를 좋아하신다.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서로의 관계를 고양시키고 심화시킨다. “사랑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도 들어 보기를 좋아한다. 또한 사랑은 주고자 하는 것도 요청받기를 원한다.”  
(Forsyth)
9.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응답하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해야 한다.
10.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거절이 때때로 우리의 가장 진실된 기도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될것이다.”(Forsyth)
11. 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기도 하다.
12. 또한 우리의 기도가 사실상 응답되었는데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도 하다.
13.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대해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14.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한다.
15.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죄와 낙심이다. 죄와 낙심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무기이다. 낙심이 기도를 망치고 회개가 기도의 문을 연다.
16. 때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를 얻는 축복이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승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 FOCUS



후러싱제일교회 사람들



300초의 고백



선교지에서 온 편지



FUMC 소식



# 후러싱제일교회 사람들

한결같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김지환 권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더 잘 믿는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넘치는 복을 더해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늘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디에서든지 차별받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차별하지 않는 어른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사랑 많이 받는 아이들로, 그래서 어른이 되어 사랑 많이 줄 수 있는 어른들로, 자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릴 적 우리 교회에서 심은 신앙의 씨앗이 잘 뿌리내려서 건강히 자라, 나중에 어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 신년 특별새벽예배 기간 중,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함께 참석한 1월6일 토요 새벽예배에서 김지환 권사님이 대표기도로 올린 기도문 일부이다. 2024년을 열며, 우리 교회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환 권사님을 만나보았다.

김지환 권사님은 주중에는 맨해튼 트라이베카 지역에 위치한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금융맨이다. 주로 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투자은행에서 일하다가,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공부할 때 김정호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던 아틀란타한인교회에 출석하였다. 석사 학위를 마친 뒤, 현재의 투자은행 본사가 있는 플로리다 템파에서 근무를 시작, 지난 2018년 직장 내 업무에 따라 뉴욕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당시 이미 뉴욕에 오셔서 목회하시던 김 목사님을 따라 후러싱제일교회에 믿음의 동지를 틀게 되었다.

남편과 함께 유학을 왔지만 예쁜 지안이(10살)와 재인이(8살)를 낳고 키우느라 애쓴 아내분 최혜정 집사님은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야 본인의 공부를 뒤늦게 하고 있다. 그래서 주중에는 두 부부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낮에는 각자 공부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치우고 아이들 숙제 좀 봐주고 하다 보면 어느새 밤 9시가 훌쩍 넘는다. 김 권사님도 집에 일거리를 들고 와 늦게까지 하는 일이 잦지만, 최 집사님은 매일 새벽까지 밀린 숙제와 공부를 하곤 한다. 그래서 주말도 다른 집하고는 조금 다르게 바빠 돌아간다. 밀린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하고 짧지만 찐한 가족만의 시간을 갖는 일도 몰아서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교회에서 권사직을 맡기셨을 때도, 그리고 교육위원장 자리를 맡기셨을 때도, 김 권사님은 자신같이 평범하고 나서는 것 싫어하고 게다가 이렇게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자문하면서도 교회에서 맡기시는지라, 그저 알겠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셨다고 한다. 한 해를 돌아보니, 자신이



한 일이 없어서 어디서나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고 다녔던 생각만 난다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다니다시피 교회 일을 맡으면서 깨닫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시키신 것 같다고, 이렇게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 같다고 송구한 마음으로 고백을 한다.

김지환 권사님은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모태신앙'이다. 증조할머니가 이북에서부터 신실한 기독교인이셨다고 한다.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도 장로님이시다. 한국에서는 어려서부터 그 유명한 종교교회에 출석하였다. 종교교회에 시무하시던 나원용 목사님의 사모님이 친할머니와 사촌간이셨다. 집안 대대로 신앙을 지키고 물려주신 어른들 아래서 자라다 보니, 교회 생활은 김 권사님에게 공기를 마시며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김 권사님에게도 방황의 시기는 있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괜히 말씀도 싫고 다니던 교회도 가기 싫어졌던 것이다.

신기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본인이 출석하고 온 가족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 용산의 삼일교회니, 온누리교회니, 다른 교회들을 반년 정도 기웃거리고 다녔다. 그렇게 안정을 못 하고 돌아다니던 때, 종교교회 청년부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제발 다시 와서 청년부 예배 한번만 드려보라 강권하셨다. 김영석 목사님이셨다. 이때 갑자기 종교교회의 청년부가 부흥을 하게 되었는데, 돌아보면 그 시기가 김 권사님에게는 신앙적으로 제일 성장한 때였다고 한다. 유학을 오기 전, 인턴십을 다니던 은행도 광화문에 있었고, 종교교회도 광화문에 있어 자주 교회에 들리고 금요일마다 기도회도 참석하고 하면서 신앙이 깊어졌다. 평생에 잊지 못할 경험도 이때 하였다.

당시에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서 진심으로 다른 이를 위한 중보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하였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2011년 어느 금요일 기도회. 그 날은 아이티에 지진이 났던 날이었다. 당시 어려운 지역을 다니며 봉사를 하던 의료인 단체가 있었는데, 교회 장로님 한분이 그 의료회에 소속되어 쓰나미 현장에 가서도 돕곤 하

셨다. 그 분이 기도회에 오셔서, '지금 아이티에 지진이 나서 도와야 한다'고, 특히 '짐꾼으로 봉사할 청년이 필요하다'고 광고를 하셨다. 광고 후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 마음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메말라 있을까'라는 자책과 함께 '아이티에 따라가서 돕다 보면 내 메마른 마음이 좀 달라질까?'라는 질문이 떠올랐고, '혹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권사님은 회사 인턴이라 휴가는 커녕 하루 반차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무슨 용기가 났는지 회사에 1주일 휴가를 내고 아이티에 봉사자로 자원하여 갔다. 그곳에서 전재덕 선교사님을 만났고, 짐꾼으로서 땀 흘리며 일했다. 아이티에서 보낸 1주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으로 목격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때의 경험이 오늘날 김지환 권사님을 교회 일에 뛰어 들어 섬기게 만들어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래도 교육위원장이니, 권사님의 주일은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시간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년간, 권사님에게 제일 많은 가르침을 준 분들은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다. 코비드 기간 동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다. 교육부 목회자분들의 이동도 잦았다. 그런데도 정말 놀라운 점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선생님이나 중고등부 선생님이나 수년을, 똑같은 분들이 한결같이 끈끈하게 봉사하시면서 요동치 않고 교육의 자리를 든든히 해주시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이고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 여긴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김지환 권사님이 자신이 부족해 제대로 못 한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는데, 오래동안 교사 자리에 계시는 어느 선생님 권사님이 오히려 김 권사님에게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셨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아, 이런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그동안 자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과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김지환 권사님은, 이런 선생님들의 마음 덕분인지, 주일학교에 나날이 활기가 더해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동안 아이들이 편하게 뛰놀 공간이 없었는데, 작년



에 유치등부실 2층을 리모델링하고 넓게 터서 놀이방을 만들었다. 몽키바도 만들고 정글짐도 만들고 페인트칠도 새로 하였다. 벌써 들어서는 아이들 얼굴부터가 환하다고 한다. 이번 달에 있을 교사-학부모회의(PTA) 때에는 다들 더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아이들의 숫자도 조금씩 늘고 있고 부모님들도 전보다 의견제시에 적극적이다.

그래서 김 권사님은 거창한 1년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주일학교 모습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작년에 교육부끼리만 모여 행사를 가진 크리스마스 교육부 발표회를 올해는 좀 더 확대하여 전교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 이 발표회는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모든 주일학교 부서가 참여하여 8-9개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무언극도 있었고 핸드벨 연주도 하는 등 다양하게 준비되었다. 거의 두 달 동안, 아이들이 교회학교 후에 남아서 연습을 하며, 발표보다 준비하는 그 자체가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아이들도 서로 더 친해지는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끝으로, 우리 후러싱제일교회에 앞으로 더 바라는 점이나 보완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권사님께 물어보았다. 김권사님은 제일 먼저, 자신이 신앙적으로 가장 깊어진 청년의 때를 떠올렸다. **'우리 교회에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그 귀한 신앙이 젊은 세대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감사하게도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여 집안 어른들 덕분에 교회 생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 익숙하지만, 내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나인데도 청년시기의 교회생활이 내게 깊이 각인되어 있을만큼 청년기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 같다. 내 주변에는 성장한 뒤 어른이 되어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접한다 해도 내 청년 시기 때처럼 평일이나 주일 오후에나 예배 시간 이외에도 교회에 드나들며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실제적으로 교회생활을 즐기며 접해보지 못해서 교회생활의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겪은 체험을 함께 나누고 싶어 안타까울 때가 자주 있다.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여 가정이 생겨 분주해지고 하기 전에, 비교적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청년의 때에 이런 신앙의 체험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기를 바란다'는 권사님의 말을 들으며, 그런 권사님의 간절함 때문에 우리 후러싱제일교회는 세대를 통해 믿음을 전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더 강해졌다.

주일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꽤 있는데 부모님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주일에 이 아이들의 부모님과 같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교육위원장님. 그러면서도 한창 일할 나이의 업무에 싸인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바쁜 시간을 쪼개다 보니 교회에 더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해 늘 죄송하고 아쉽다는 권사님. 이런 김지환 권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허리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니, 우리 후러싱제일교회의 밝고 환한 새로운 한 해가 기대되며, 하나님께 그저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김지환 권사님과 최혜정 집사님, 지안이, 재인에게 늘 건강과 평강, 웃음만 넘쳐나기를 기도한다.

# 300초의 고백

주의 곁에 있을때 맘이 든든하오니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최정숙 권사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밤 2004년 첫 수요일예배에 이 귀한 제단에 부족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담임목사님과 온 교역자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얼굴에 십전짜리 동전 모양의 둥그런 반점이 생겼는데 무심히 몇달이 지나고 피부과에 갔더니 피부암 초기라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이거 무서운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서 치료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암이라는 그 말에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날이 결혼 58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섭기보다는 ‘괜찮을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마음이 편하여졌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많은데 남편 사업 실패로 빚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반찬가게에서 밤일을 하면서 새벽에 퇴근하는 어느 겨울날 하얀 눈이 곱게 쌓인 거리를 걸으면서 60년 전 남편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걸었던 눈내리던 추억의 길목들이 생각 났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에 12시간씩 반찬을 만들고 꼬박 밤을 새우며 퇴근하는 주일 새벽에, 집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급히 교회 성가대실 도착하면 피곤했던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설교시간에도 신기하게 즐리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걸 분명히 가슴으로 깨달았습니다.

안일하고 편하게 살았던 지난 날들을 뒤로 하고 정금같이 다듬어 주시려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 길을 걷다가도 저도 모르게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주의 곁에 있을 때 맘이 든든하오니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찬양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밤일이 너무 힘들어서 낮에 하는 일을 구했습니다. 자마이카 생선 튀김 가게에서 6년 반을 열심히 일하면서 빚도 다 갚고 지금은 맨하탄 게스트하우스에서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 여든에 힘든 일을 하느냐고 주위 분들은 그렇게 말씀들 하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이 곁에 계시기에 고단치 않고 저는 행복합니다.**

이번 12월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완치되었으니 일년에 한 번씩 와서 검사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팔과 다리에 그동안 없었던 검은 반점들이 눈에 보이기에 행여 암이 전위되지 않았는 걱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피부 현상이라고 말해 주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허락 중에 사는 우리가 때로는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죄스럽게 생각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중보기도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물질적으로 혹은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저희 부부에게 지난 시간에 베풀어주셨던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300초의 고백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새벽 공기와 함께 어린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양정임 권사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아름다운 내 고향 어린 시절 우리집 앞마당에는 감나무 다섯 그루와 앵두나무 등 가을이면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저 감 보라!” 하고 부러워하면 감나무 가지를 꺾어 주기도 했지요. 뒷마당엔 울창한 대나무 숲과 오동나무 두 그루가 운치있게 조화를 이루었고 외양간에 소, 개, 돼지, 염소, 토끼, 오리, 닭, 하얀 거위, 꿀벌, 봄이면 노오란 병아리가 앞마당에서 삐약거리고, 종종거리는 모습의 하얀 거위는 기품있게 어그적 거리며 “궤~엑,” 대문을 열면 우리 논들이어서 확 트인 들판 앞에는 개울물이 흐르고 건너 앞동산에는 빠꾸기 새 소리와 진달래 꽃이 만발하고 아카시아 꽃향이 진하게 풍겼으며 그 옆에는 커다란 소나무가 버티고 있어 한쪽의 산수화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보리가 자라는 봄엔 온 들녘이 녹색 물감을 부어놓은 듯 하였고 가을이면 노오란 벼들이 고개숙여 겸허한 모습으로 황금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그 들판 끝자락에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가 있었고 뒷마당 옆에 교회와 종탑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약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새벽 공기와 함께 어린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교인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 사상이 강했던 송씨 가문에 주위에서 존경받는 저의 아버님이셨기에 손님들이 수시로 드나드셨습니다. 저 위로 오빠는 국가고시 행정직 전국에서 수석을 하셨습니다. 30대에는 행정고시로 또 전국에서 수석을 하셨지요. 저는 셋째 막내 딸로 별명이 공주였습니다.

아버님께선 매일 아침이면 고전 서적을 크게 소리내어 읽으시며 제가 밥을 잘 안 먹으면 한약을 지어다 손수 가루내어 벌꿀에 버물러 알로 만들어 먹이시곤 하셨습니다. 남녀칠세부동석을 강조하셨고 ‘여자 웃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나가면 그 집은 망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님은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단다. 참을 인자 세 번만 입속에서 삭히면 살인도 면한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자랑스럽고 훌륭한 부모님이셨습니다.

새벽이면 교회 종소리가 아름답게 메이라 쳐 오는데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겠지요. 워낙 완고하셨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교회오면 선물 준다고 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부모님께는 친구 집에 간다고 말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때부터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면서 부모님 모르게 이핑계 저핑계 대며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다음해엔 성탄절 성극을 하는데 천사역을 저에게 주어 열심히 외웠습니다. (눅 2:10,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머님 한복 하얀 치마를 머리에 쓰고 길게 늘어뜨려 천사의 모습으로 분장했습니다. 지금도 성탄절이면 어린시절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푸른 잔디가 아름답게 펼쳐진 잔디에 갑자기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나비처럼 날아왔고 그 눈송이 속에 하얀 예쁜 상자가 슬며시 내려와 두손으로 살포시 안았습니다. 제가 성장한 후에 어느 전도지에서 똑같은 상자가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 선물이라는 걸, 구원은 거저 주신 선물,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이란 축복(선물)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어머님께서 안방에서 나오시다가 개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환도빠가 부러져 병원에 가서 기브스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소변 배설이 잘 안되어 온 몸에 독소가 퍼져 얼굴과 몸이 호박처럼 부어 올라 고칠 수 없다고 퇴원해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문병오셔서 오늘 못 넘길 것 같으니 옷도 갈아입히고 마음 준비하라고 해서 낙심하던 차 오라버님께서 전남대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검사를 해도 병명이 안 나와서 기다리는데 옆 호실에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가실 수 있겠구나’ 놀라서 밤늦게 옥상으로 올라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만 저희 어머니 생명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년만 연장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빠도 결혼할 때가 됐고 저도 그렇고 어머니 안계시면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할 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저는 ‘5년만 어머니 살려 주신다면 무엇이든 순종하겠다’고 울면서 서원했습니다. 눈은 통통 부었지만 하늘을 바라보니 별들이 나를 향해 울어주는 듯해서 가슴이 뻥 뚫리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뒤쪽에 누워 쪽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어머니께서 시원한 된장국을 드시고 싶다고 어눌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아 이제 가실 때가 되었나? 먹고 싶은 것을 찾는다고 하는데.’ 울며 기도하며 무우 잎파리와 우거지를 넣고 멸치 된장국을 끓여 약물처럼 입에 넣어 드렸더니 꿀떡 꿀떡 삼키셨습니다. 조금씩 드시고 서서히 회복되셔서 5년이 7번 지난 35년을 더 사시고 예수님 영접한 후 96세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성균관대 향교에 다니며 시도 쓰시고 친구분들 소일하시다가 한 달간 몸져 누워계셔서 애들 재워놓고 일주일에 세 번씩 강북 성산동에서 강남 도곡동으로 가서 아버지를 돌봐 드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두 손을 꼬옥 잡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님 이 손 꼭 붙들고 천국에 입성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멘을 세 번 따라하신 후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 올케 언니가 장례식 마치고 가족이 다 있는 곳에서 ‘막내 고모! 이번 아버님 일로 감동 받았어요. 나 고모 존경해요’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셋째 아들 지금 찬양 사역하는 양학모 집사는 세상에 태어난 지 2주 후에 결핵예방 접종을 한 후 부작용이 나타나 목 임파선이 구슬만큼, 겨드랑이에 탁구공 만하게 부었습니다. 목 임파선은 굵아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했습니다. 아기는 통증 때문에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의사는 약 먹이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40일 금식하며 새벽 제단 쌓겠습니다. 이 아들 깨끗하게 치료하시어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유를 수유하면서 금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처 부위를 만지면서 기도하던 날들이 지나고 40일이 지난 후에 상처가 다 사라졌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모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으니 죄 지으면 안돼!”





# 선교지에서 온 편지

피지 이성일 목사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1997년 9월부터 1999년 8월 말까지 후러싱제일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이승운 목사님과 김종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 1. 피지에 가시게 된 동기

저는 에즈베리에서 선교학 박사과정을 마친 후에 세 차례나 선교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이라는 새로운 선교지에서 일하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목회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주셔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축복의 땅 미국이 제게는 안락지대(comfort zone)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제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하고, 다시 남은 생애 선교현장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이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 안식년을 갖고 한국을 포함해 동남 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지도자 훈련과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선교현장으로 다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였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21:18의 말씀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21:18). 여기서 “젊어서는”이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를 가리키고, “늙어서는”이라는 말은 영적 성숙의 때’를 말합니다. 교만한 저를 다듬어 가시는 긴 과정을 마치면서, “남”(성령님과 타인)이 이끄는 데로 이끌려 가

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4개월간의 순회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때 연합감리교회 선교국 GBGM을 통해 피지의 신학교(MLTC)에 교수 사역 제안을 받고,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가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제안이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깊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 2. 선교사 신분

2020년 코비드 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GBGM 선교사 훈련이 줌으로 대체되고, 2020년 7월부터 섬기기로 한 피지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모양 저런 방법으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통과하였습니다. GBGM 선교사 훈련을 받는 중에는 코비드 실업수당을 통해 풍성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2021년 1월부터 에모리 대학 캔들러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선교지의 문이 마침내 열려 2022년 4월 피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피지는 2개의 큰 섬과 322개의 아주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면적은 1만 8,274km<sup>2</sup>로 남한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수도는 수바(Suva)이며, 의원 내각제를 공화국입니다 (<http://www.atlasnews.co.kr>) 공용어로 Fijian, English, Fiji Hindi가 사용되고 있으며, 종교는 기독교 64%, 힌두교 28%, 이슬람교 6% 등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인구는 2021년 924,610명 (World Bank)으로 보고 되었으나 2023년 추정 통계에 의하면 898,000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https://www.britannica.com/place/Fiji-republic-Pacific-Ocean>)

## 3. 사역의 내용

지난 2년 동안 다음과 같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는 피지 감리교 신학교에서 1) Teaching/Preaching Ministry (구약성경, 역사, 선교학, 상담학), 2) Spiritual Enlightenment Conference (개강 부흥성회), 3) Spiritual Formation Retreat (매년 교수/졸업생 대상), 4) Caring Ministry (신학생 돌봄), 5) Scholarship Ministry (장학 사역), 6) Evangelism Ministry (매주 토 or 주일 2-5시 현장



전도사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신학교를 방문하는 외부 강사들 중에서 제 피지 한인 선교사를 위해 세미나를 열고 섬길 수 있었고, 코이카에서 파견되어 온 의사들을 모시고 신학생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피지에 있는 한인 교민들이 가진 음악적 재능과 기술적 재질들을 가지고 학생들과 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 시작할 사역들. 위에 사역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역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 1) Starting Mobile MLTC ministry -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을 위해 지역별로 세미나 사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방문하여 일일 혹은 1박2일 세미나를 진행하여 목회자 연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Leading a Life-Sharing Small Group for the effective Leaders - 교실 중심의 교육은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돕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단위로 삶을 나누는 성경공부를 통해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을 학생들과 중견 목회자 그룹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3) Holding Nation-Wide Seminars for the Development of Pastors and Lay Leaders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를 피지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4) Renovating Dormitories and School Classrooms- 열악한 학교의 기숙사와 교실의 책상/결상 등의 개선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5) 졸업생을 위한 “은혜 동산”(Tres Dias, Spiritual Formation Retreat)을 할 수 있는 교회와 팀을 초청하여 학생들로 졸업하기 전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목회현장에 돌아가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 4. 비전과 목표

저의 선교의 비전과 목표는 피지에서 자신의 작은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의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저는 그 제자들이 주님이 분부한 모든 일을 감당할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를 삼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 일에 수고할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먼저 제



자가 되고 또 그들이 제자 삼는 제자 되도록 돕는 일에 남은 생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 5. 현지 사역의 가장 큰 보람과 어려움

모든 성도가 다 목사일수도 없고, 또 해외 선교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각자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선교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선교 현장에서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을 함께 섬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들이 온전한 성령의 도구가 되어 지역교회들을 선교의 동역자로 세워가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또 불가능한 것이 있어야 기도할 이유가 생깁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나쁜 상황과 녹녹치 않은 조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넉넉히 받아 내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7:7-11)

지난 1월 1일(월)부터 6일(토)까지 “기도 응답 받는 새해” 라는 주제로 신년특별새벽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김정호 담임목사께서는 마태복음 7:7-11 본문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기도”란 제목으로 첫날 기도회를 시작하셨습니다. 31일 송구영신예배를 마친 후라 다들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년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고자 열망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란 장로님들의 특송은 새벽공기에 가슴벅찬 찬양이었습니다.

또한 목회실에서는 기도회에 맞춘 기도회집을 편집해 한국어 버전 뿐 아니라 EM을 위해 영어 버전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일마다 존 웨슬리의 아침기도를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신것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요일마다 “복의 지경 확장 기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소원성취의 기도” “회복의 기도” “말씀을 담은 기도” 등의 제목으로 말씀과 함께 사역자 일동, 연합 찬양대, 교구/속,부속장, 총여선교회 등의 특송이 있었고, 특히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어린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다함께 교육부 특송과 아이들을 위한 안수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을 설치며 부모님 손에 이끌려온 모습이었지만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6일간의 기도회 후에는 남산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따뜻한 아침 간식이 준비되어서 성도들이 맛있게 먹으며 친교를 나누고 2024년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를 마쳤습니다.



# 믿음의 친구들 소그룹 운영

## (The Manual of the Band of Brothers & Sisters)

### 1. 실제적인 운영

- 1) 매일 규칙적인 기도와 자아성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 (1) '기쁨의 언덕'을 주교재로 매일 실시간 새벽예배를 드린다.
  - (2) 새벽기도가 어려울 경우 유튜브 온라인예배 저장된 것을 통해 한다.
  - (3) 기도시간 기도제목
    - i. 나에게 있는 중풍병의 현실은 무엇인가?
    - ii.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할 중풍병에 걸린 현실, 사람 등은 누구인가?
- 2) 믿음의 친구들 모임을 꼭 참석한다.
  - (1) 리더가 4명을 한조로 구성한다.
  - (2) 1주일에 1회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모임은 1시간을 넘지 않는다.
  - (4) 교재는 주일 담임목사님 설교이다.



### 2. 리더들을 위한 매뉴얼

- 1) 리더란 누구인가?
  - (1) 선한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딤후3:1)
  - (2) 영향력이 흘러가는 사람이다.
  - (3)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역하는 사람이다.
  - (4) 하나님의 비전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피터와그너)
  - (5) 리더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다.
  - (6)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일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 (7) 경청하는 사람 (8) 겸손한 사람 (9)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 (10) 차별 없이 누구나 환대하고 환영하는 사람이다.
  - (11) 획일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다.
  - (12) 팀을 세우는 사람-대화중심, 사람을 우선하라, 세밀한 계획을 짜라, 개척을 향한 의지, 믿고 권한을 위임 할 줄 아는 사람, 협력할 줄 알라, 확실한 미래와 목표를 제시하라
  - (13)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라 (14)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
  - (15)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 (16)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 (17) 교회 밖 사람들의 필요와 현실에 민감하라
  - (18)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19) 결정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
  - (20) 조정이 아닌 섬기는 자가 되라 (21) 운영이 아닌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라



# FUMC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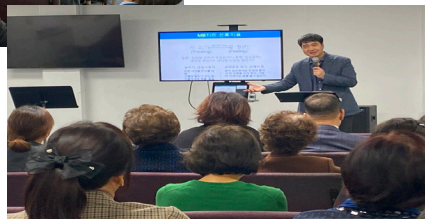
## 2023년 제3차 입교식

1지난 12월 3일 제3차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강점자 집사님, 김정기 집사님, 최흥규 집사님, 고희숙 성도님 등 총 4분이 입교하셨고 새로 배속된 속회 속장님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 소그룹 리더십 교육 안내

지난 12월 10일 “자기 발견 및 리더십 개발”이라는 주제로 교육관 3층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강사 진세관 목사는 MBTI 를 통해 자신이 가진 은사를 발견하고 적절한 리더십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DECEMBER

| SUN | MON | TUE | WED |
|-----|-----|-----|-----|
| 26  | 27  | 28  | 29  |
|     | 4   | 5   | 6   |
| 10  | 11  | 12  | 13  |
| 17  | 18  | 19  | 20  |
| 24  | 25  | 26  | 27  |
| 31  | 1   | 2   | 3   |

## 교육부 성탄 축하 발표회

성탄의 계절 12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FUMC교육부에서 성탄 축하 발표회를 잘 마무리 했습니다. 아이들의 무대에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로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유초등부 Play Room Open

교육관 2층 유초등부실 페인트칠을 새로 해서 훨씬 쾌적한 환경이 되었고, 기존의 class room 두개를 합하여 놀이방으로 꾸몄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교회 오기가 즐겁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 대강절 예수 사랑 캠페인

‘희망 친구 미주 기아 대책본부’ 주관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희망상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또한 베이사이드 Anchor Inn 에 머물고 있는 난민 어린이 들을 위한 성탄 선물 package도 90개 만들어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분들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가나,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온 우리 이웃입니다.



R 2023

| THU | FRI | SAT |
|-----|-----|-----|
| 30  | 1   | 2   |
| 7   | 8   | 9   |
| 14  | 15  | 16  |
| 21  | 22  | 23  |
| 28  | 29  | 30  |
| 4   | 5   | 6   |

## 중고등부 Message Retreat

지난 12월 26일(화)부터 12월29일(금)까지 중고등부 동부 연합 수련회를 다녀 왔습니다. Testify the Light (빛을 증언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해에는 후러싱제일교회가 찬양 인도에 앞장섰습니다.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고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희망친구 미주기아대책 2023년 사역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는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의 땅에 복음과 사랑으로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1. 긴급구호, 난민사역-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구호에 35 만불 지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구호 및 난민촌 지원 35 만불, 북아프리카 자연재해 구호 5 만불 등 75 만불 지원
2. 아동결연지원(CFCT)-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부룬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아이티, 도미니카, 페루, 볼리비아, 10 개국 12 센터에 2000 명 빈곤 아동 30 만불 지원
3. 파송 선교사 지원- 케냐,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아이티, 볼리비아, 도미니카, 시리아, 우크라이나에 파송, 협력으로 사역중인 선교사 지원 12 만불.
4. 프로젝트 사업 지원 - 교회 건축 3 곳(볼리비아 2, 에티오피아 1), 우물프로젝트 1(케냐)
5. 단기선교 - 쿠바, 볼리비아(교회건축), 도미니카(아이티 난민), 튀르키예(벨엘, 후러싱제일),
6. 선교협력회의 - KIMNET, NCOWE, 로잔회의, KWMA, KMC 선교사회, KMC 미주연회, CBMC 북미주대회, 동남부후원이사회, 시카고교협, 시카고선교협 등.
7. 선교세미나 -카이로스(뉴저지장로, 하비스트, 뉴라이프), 퍼스펙티브스(PSP 758, 미주연합), 선교부흥회(산호세 온누리, 베다니), 미션익스포저(벨엘), 서울영동교회, 여명학교
8. KFHI 공동 모금 사업 - 콜링 캠페인 연 2회 (산호세 온누리, 임마누엘, 광복회, 예수사랑, CBMC, 산호세한인장로교회, 산타클라라 KUMC, 벨엘, 열린문, 와싱턴중앙, 헬로쉽, 세미한, 달라스중앙, SWBS)
9. FH Sunday(기아대책 선교주일)-AFC, 아틀란타새교회, 한소망, 새소망, 워싱턴감리, 진관, 새마음, 브릿지, 다솜, 나성동산, 전농, 락포드장로, 라팔마 KUMC, 뉴욕제일, 어번한인, 산호세온누리, 캐나다광림, 시카고쥬블리, 퀸즈한인, 지구촌, 경인, 베다니, 안성제일, 전농, 하늘성 등.

## 2023 ~24 주요 예정 사역

1. 구호개발-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겨울나기 27 만불 예산(별첨), 튀르키예 교회 및 학교 지원

| 사업국가  | 사업명                                  | 사업비          | 행정비(15%)포함   |
|-------|--------------------------------------|--------------|--------------|
| 폴란드   | 폴란드 우크라이나 난민 교회 GLC 렌트비 지원           | US\$ 23,244  | US\$ 27,345  |
|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키이우주(Kyiv Oblast)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 | US\$ 167,000 | US\$ 196,470 |
|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중동부지역 취약계층 식량 지원               | US\$ 35,000  | US\$ 41,176  |
|       | 합계                                   | US\$ 225,244 | US\$ 264,991 |

2. 선교지 프로젝트- 에티오피아 교회 10 만불, 아이티 난민교회 6 만불, 케냐 우물사역 5 만불. 혁년비전센터 50 만불.
3. 단기선교- 도미니카, 볼리비아, 케냐, 우크라이나, 태국, 방글라데시, 마다가스카르.
4. 빈곤아동결연, 2000 명이 새로운 희망친구 후원자 결연
5. KFHI 공동 모금 행사- 콜링캠페인, 상반기(시애틀, 남가주), 하반기(뉴저지, 뉴욕, 아틀란타)
6. 로잔국제회의를 통해 NGO 선교의 새로운 지평 모색
7. KAFHI 선교사 재교육을 위한 수련회 (예산 5 만불)



# 2024년 후러싱제일교회 리더십 명단

## 행정부

임원회장: 김성태 장로

재단관리위원회 - 위원장: 하용화 장로

2024 윤관호 장로 하용화 장로 조수길 권사 / 2025 곽재천 장로 심데이빗 장로 이배욱 장로  
2026 이한수 장로 김지훈 권사 정명천 장로

목회협조위원회 - 위원장: 최형무 장로

2024 배성자 권사 전기홍 권사 김경숙 장로 / 2025 김지환 권사 장하영 권사 양학모 집사  
2026 송지예 권사 최형무 장로 김원길 권사

재정위원회 - 위원장: 장하영 권사

회계: 김지훈 권사 서기: 김혜영 권사 감사: 이근수 장로 권정석 장로  
계수: 이신애 권사, 송지예 권사, 강효영 권사 재정사무 스텝: 백경하 권사

당연직 위원: 임원회장, 목회협조위원장, 재단관리위원장, 평신도대표, 연회대표

인선위원회 - 위원장: 담임목사

2024 양은희 권사 이화자 장로 고경식 장로 / 2025 송주희 권사 문영미 권사 임성원 권사  
2026 주제니 권사 백경하 권사 한만웅 집사

평신도대표 - 이한수 장로

연회대표 - 김진수 권사

## 사역부

목양위원회 - 위원장 : 심데이빗 장로

교구위원회 - 위원장: 장혜택 장로

1교구: 김선옥 권사 / 2교구: 이한수 장로 / 3교구: 장혜택 장로

4교구: 윤관호 장로 / 5교구: 곽재천 장로 / 6교구: 심데이빗 장로

교육위원회 - 위원장: 김지환 권사

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50주년기념사업회)

원로 자문위원회: 이흥용 장로(위원장) / 기획 실행위원회: 하용화 장로(위원장)

예배위원회 - 위원장: 김연희B 권사

음악위원회 - 위원장: 이화자 장로

멀티미디어위원회 - 위원장: 이성훈 집사

선교위원회 - 위원장: 김현진 장로

해외선교팀: 양정임 권사 지역선교팀: 김동찬 집사 정의평화사업팀: 송지예 권사

주일친교위원회 - 위원장: 김경숙 장로

문화친교위원회 - 위원장: 김현정 집사

전도위원회 - 위원장: 김경일 권사

교회관리위원회 - 위원장: 이상춘 장로 차량관리: 서동일 권사

총남선교회장: 윤관호 장로

총여선교회장: 송주희 권사

청년회장: 최방울 성도

영어목회부[EM]: 장은영 집사

## ANNOUNCEMENT

### 1. 교육부 학부모 PTA

담임목사님과 학부모와의 만남이 1월 21일(주일)  
오후 12:15에 교육관 3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 2. 2024년 신규 임원 신년하례회

신구임원 신년하례회를 1월 21일(주일) 오후 4시에 친교실에서 갖습니다. 해당되시는 임원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3. 설잔치

금년 설 명절은 2월 11일(토)입니다. 2월 12일, 주일 오후 1시부터 친교실에서 설잔치 행사를 진행합니다. 교구별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 4. 2024 봄학기 한글학교 등록 안내

일정: 3월 2일(토) ~ 6월 8일(토) 15주 과정  
(3월 30일, 5월 25일 휴강)  
수업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수업대상: Pre-K ~ 5th Grade  
등록기간: 1월 7일(주일) - 1월 28일(주일) / 재학생 우선  
등록 후 선착순 마감  
등록방법: Google Form 제출 또는 신청서 사무실로 제출  
문의: fumcks8599@gmail.com, 목회실 또는 최기향 사모

### 5. 부서사역 섬김이 모집

대상: 예배부 (본당 청소 정리 및 예배 준비)  
새가족 돌봄팀  
중보 돌봄팀  
문의: 목회실

### 6. 수요일예배 저녁 봉사자 모집

수요일예배 전 식사(간식) 준비를 도와주실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목회실

### 7. 설교 방송 단비TV 신규 편성

주일 설교방송에 단비TV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방송에 더해 주일 저녁 10시와 월요일 낮12시 등 2회에 걸쳐 방송됩니다. 스펙트럼 채널 1487입니다.

### 8. 스포츠교실 봄학기 개강

탁구와 검도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탁구는 마감되었고 검도는 아직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탁구: (화) 10:30am~12:30pm (금) 6:00pm~8:00pm  
검도: (화) 7:00pm~8:00pm (목) 7:00pm~8:00pm

## 예배 SERVICES

### 주일 SUNDAY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SMALL CTR

### 청년예배 YOUNG ADULTS SERVICES

2:30 pm @소예배실

###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본당/온라인  
수요일 8pm 본당/온라인

###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영아부(만2세미만) / 유아부(만3세미만)  
유치부(만3-4세) / 유초등부(K-5) 11 am

### 청소년 YOUTH (ED BLDG)

중고등부(6-12) 11 am

###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30 am (Sat)

###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web/live/>  
새벽예배, 주일예배, 수요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목회상담실 문의: 718-939-8599

### 설교방송 TV/RADIO

주일 9 am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10 am Voice of NY 라디오 코리아 FM 87.7 (앱 FM877)  
10 pm 단비TV (Spectrum Ch.1487)

월요일 7:1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12 pm(정오) 단비TV (Spectrum Ch.1487)

토요일 9 pm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9 am/7 pm cbsn ([www.cbsnewyork.net](http://www.cbsnewyork.net))

발행인: 김정호  
편집: 뉴스레터팀

38-24 149th Street, Flushing, NY 11354  
Tel. (718) 939-8599  
Email: [fumc@fumc.net](mailto:fumc@fumc.net)